

2011년도 APRC 신공공외교 세미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한러관계

- 일 시 2011년 4월 1일(금) 14:30-16:00
- 장 소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화상회의실(7층)
- 주 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사업단
- 후 원 한국연구재단

목 차

• 21세기 신 공공외교의 성격과 방향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1
• 러시아 공공외교의 성격과 방향 알렉세이 말로레트코 (주한 러시아대사관)	 12
• 러시아의 대한 공공외교 개관 잔나 발로드 (서경대학교)	 23
•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이상과 현실 유민 (전 주러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44
토론: 이홍섭(국방대학교),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이완중(경원대학교), 최정현(한양대학교)	

21 세기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의 성격과 방향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 I.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공공외교’의 대두
- II. ‘신공공외교’란 무엇인가?
- III. 패러다임 쉬프트 - 한국적 공공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IV. 한국적 공공외교의 전략적 맵핑

I.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공공외교’의 대두

21 세기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외교는 전통적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민간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비정부 외교활동’을 총칭하며, 이미 지난 세기에 국가 대 국가 정부차원의 외교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크게 활성화된 바 있다. 특히 냉전기에 소련권에 대한 미국의 공공외교 전략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공산권의 몰락과 더불어 점차 그 효용성이 소진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1 세기 들어서,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전통적인 ‘국력’과 전통적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신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른바 ‘신흥시장국가’들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0 세기 말의 두 가지 사건은 적어도 제 2 차 세계대전 후 형성되고 유지되어오던 세계 정치경제의 근본적 균형점을 뒤흔들고 그 재편을 촉발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그 하나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이며, 다른 하나는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였다. 소련권의 몰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안으로서 대두되었던 사회주의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동시에, 양극화로 특징되던 세계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대립구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1997 년~1998 년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서구적 ‘자유시장 경제체제’(liberal market capitalism)의 또 다른 대안으로 대두되었던 이른바 ‘동아시아 모델’(East Asian model of development)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지난 세기 말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를 비롯한 많은 논자들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승리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을 선언하기도 하였다.¹ 과연 정치적, 경제적 가치 및 제도로써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20 세기의 승자로서 세계적 차원의 ‘보편성’ (universality)을 얻은 듯이 보였다. 미국은 유일한 슈퍼파워로 등장하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과거 사회주의권을 비롯한 신흥 시장 국가들로 급속도로 확산하였으며, 이른바 헌팅톤(Samuel Huntington)이 말하는 1970 년대 이래 민주화의 ‘제 3 의 물결’(Third Wave of Democracy)²이 전 세계를 뒤덮는 듯 하였다. 20 세기는 물론 21 세기 역시 미국을 유일 헤게몬(single hegemon)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양 축으로 하는 가치 및 제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견은 이미 21 세기 초입에 여지 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2001 년의 비극적인 9/11 테러리즘은 세계 최대의 군사 및 경제대국인 미국의 취약점을 여지 없이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보다 최근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은 물론, 긴밀하게 얽혀 있는 세계경제를 근저에서 뒤흔들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취약성을 노출시켰다. 이와 더불어 범세계적 차원의 에너지 위기는 ‘자원민족주의’를 대두시켰으며, 일부 자원부국들은 단순한 에너지자원의 무기화를 넘어서서 자신들끼리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중동 국가들 외에도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에너지자원을 매개로 하는 러시아의 급속한 재부상과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볼리비아를 축으로 하는 반미 또는 반서구 전선의 형성을 들 수 있다.

¹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²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y Century*.

이른바 BRICs 경제의 급속한 부상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급성장이 관심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서구국가들과 발전 경험이나 경로를 달리하는 이들 국가들이 세계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적 연합을 할 경우 이는 분명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갈등구조의 태동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의 전초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아우르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인도 및 이란의 동 기구에서의 옹저버로서의 참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가스 OPEC’의 모색, 러시아와 베네주엘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의 심화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새로운 갈등에 기인하는 세계질서의 재구성이 단순한 예상이나 예측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팅톤이 예견한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³은 본질적인 가치나 제도의 상이성에 기인한 갈등과 충돌을 의미하며, 위에서 적시한 최근 일련의 흐름은 분명 탈냉전 이후 서구적 가치나 제도의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세기 후반 이래의 세계화가 전통적인 국가간 장벽을 무너트리면서 급속하게 국가간 통합을 촉진시켰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품과 서비스, 노동의 국가간 이동은 물론, 괄목할 만한 자본의 흐름은 세계 무역량을 오히려 왜소하게 만들면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금융자본주의’(finance capitalism)라고 까지 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세계화는 비단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나 문화, 심지어 정치분야에서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에 기반한 조화로운 통합이라는 측면 외에도 이에 대비되는 또 다른 얼굴이 존재한다. 일찍이 폴라니(Karl Polanyi)는 1930 년대 나찌즘과 파시즘의 대두를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시장세력’(market forces)과 ‘반시장세력’(counter-market forces) 간의 ‘이원운동’(double movement)의 동학의 결과로서 설파한 바 있다.⁴ 즉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제도와 가치가 특정 사회에 전파될 때 그 사회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세력이 결집하여 저항하게 되며, 이러한 전파와 저항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그 사회의 새로운 주류 가치나 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연 오늘날의 세계화가 구 공산권을 비롯한 많은 신흥경제 국가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확산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국가들에서 새롭게 태동되는 정치경제 질서가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권 국가들, 중국, 인디아, 베네주엘라 등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획일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

³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⁴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Our Time*.

국가들에서의 내부 동학, 즉 플라니적인 ‘이원운동’의 결과는 외부로부터 투사되는 전통적인 파워, 즉 하드파워로서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하드파워의 한계는 이미 20 세기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 실패,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실패의 예에서 입증된 바 있으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그 한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력의 또 다른 얼굴인 소프트파워와 소프트파워 자산을 활용하는 ‘신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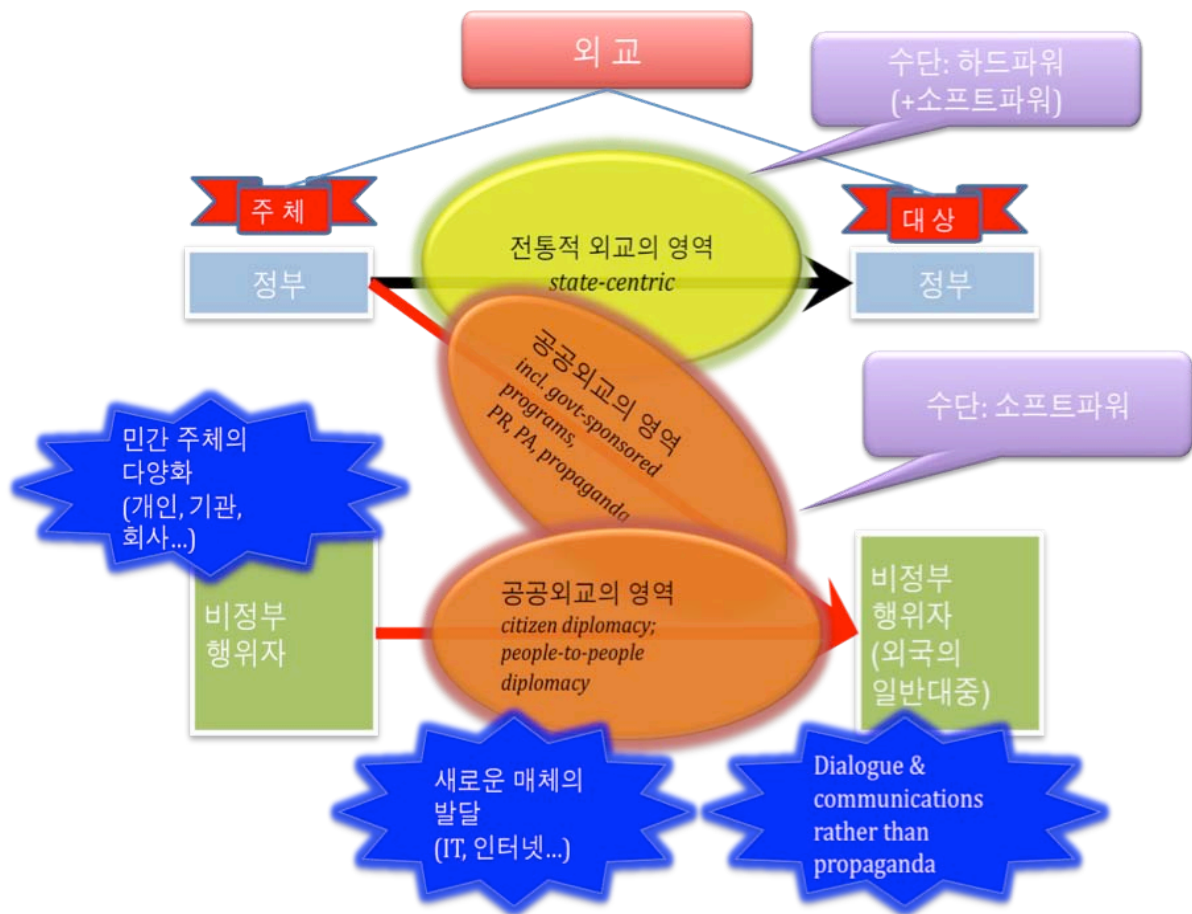
II. ‘신공공외교’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신공공외교’란 무엇이며 이는 전통적인 외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공공외교가 ‘외국의 일반 대중(foreign public)’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간 공식외교인 전통적 외교와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전기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공외교는 외교의 대상 뿐만 아니라 수단에 있어서도 전통적 외교와는 구별된다.

전통외교가 소프트파워는 물론 하드파워를 주 자산으로 사용하는 외교인데 반해서, 공공외교는 하드파워가 아닌, 가치나 제도 등의 소프트파워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중 특히 문화자산이라는 연성파워 자산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상대국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제반 활동을 문화외교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교활동을 그 수단적 자산과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곧 공공외교는 연성파워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자산, 특히 ‘지식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을 매개로 외국의 대중을 주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 세기의 ‘신공공외교’는 전통외교는 물론, 20 세기의 공공외교와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외교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의 다양성이다. 20 세기 후반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그리고 민주화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정부행위자 이외에 국제기구, NGO, 기업, 심지어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둘째, 기술혁신, 특히 IT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매체(컴퓨터, 인터넷 등)가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정보 및 지식의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구세기의 공공외교는 주로 일방향적이고 수직적인 PR이나 캠페인의 성격이 강했던데 반해서, 21 세기의 공공외교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교류와 대화가 중시되고 있다([그림 1], [표 1] 참조).

[그림 1] 전통외교 vs. 공공외교 - 주체, 대상,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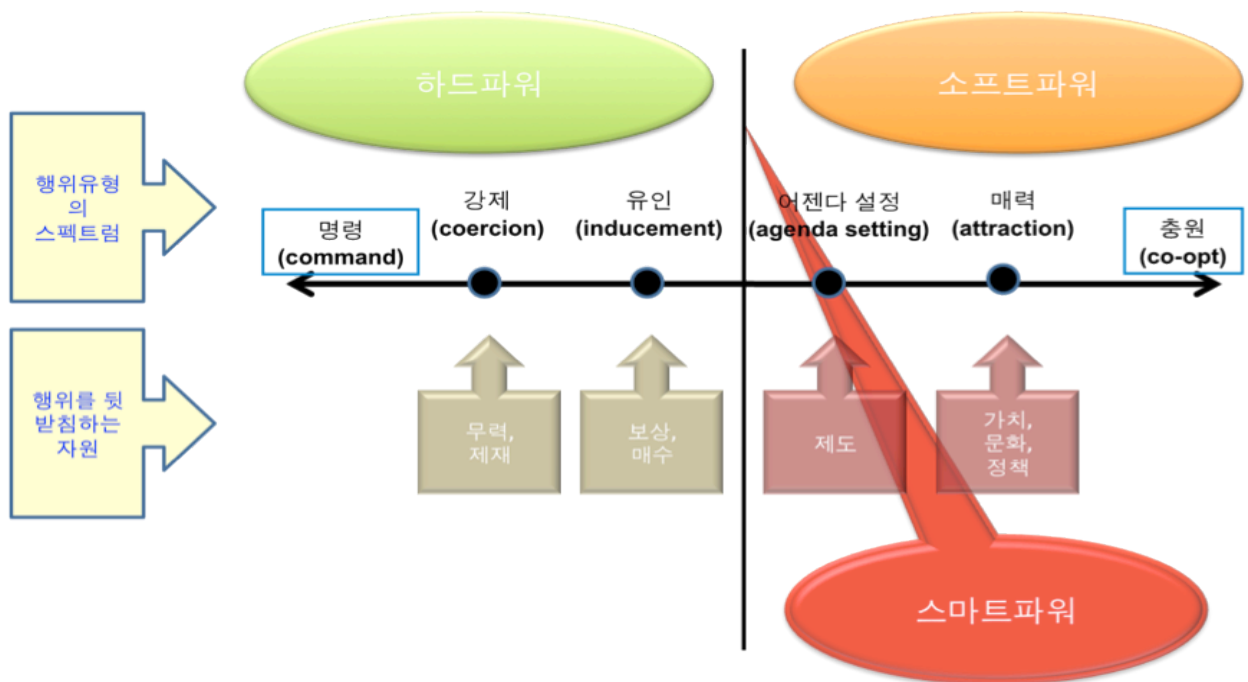
[표 1] 전통외교, 20 세기 공공외교, 21 세기 공공외교

	전통외교	20 세기 공공외교	21 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민간주체의 다양화, 정부
대상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단(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
매체	전통적 정부간 협상, 대화	PR, 캠페인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Relation type	수평적(정부간)	수직적(top-down), 일방적(unilateral)	수평적, 쌍방향적(bilateral) 교류 및 대화

또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외교를 실행하는 과정(public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r flow)에 사용되는 ‘자산’(assets, raw materials 또는 substance)으로서, “명령(command), 강제(coercion), 또는 유인(inducement)”의 행위 없이 타인의 자발적 동의나 행위를 이끌어 내는 힘”을 의미하며,⁵ 이는 다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구체적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경제적 가치와 제도’가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모방하고자 하는 매력이 있을 경우 이는 그 국가의 중요한 소프트파워 자산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의 관광자산이나 문화유산이 타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그들의 호의와 관심을 유발할 경우, 이는 곧 그 국가의 관광외교나 문화외교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또한 특정 국가의 언어나 교육, 학문적 자산,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인적 자산(human capital) 역시 외국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매력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3]은 소프트파워의 여러 자산 종류에 따라 공공외교의 영역을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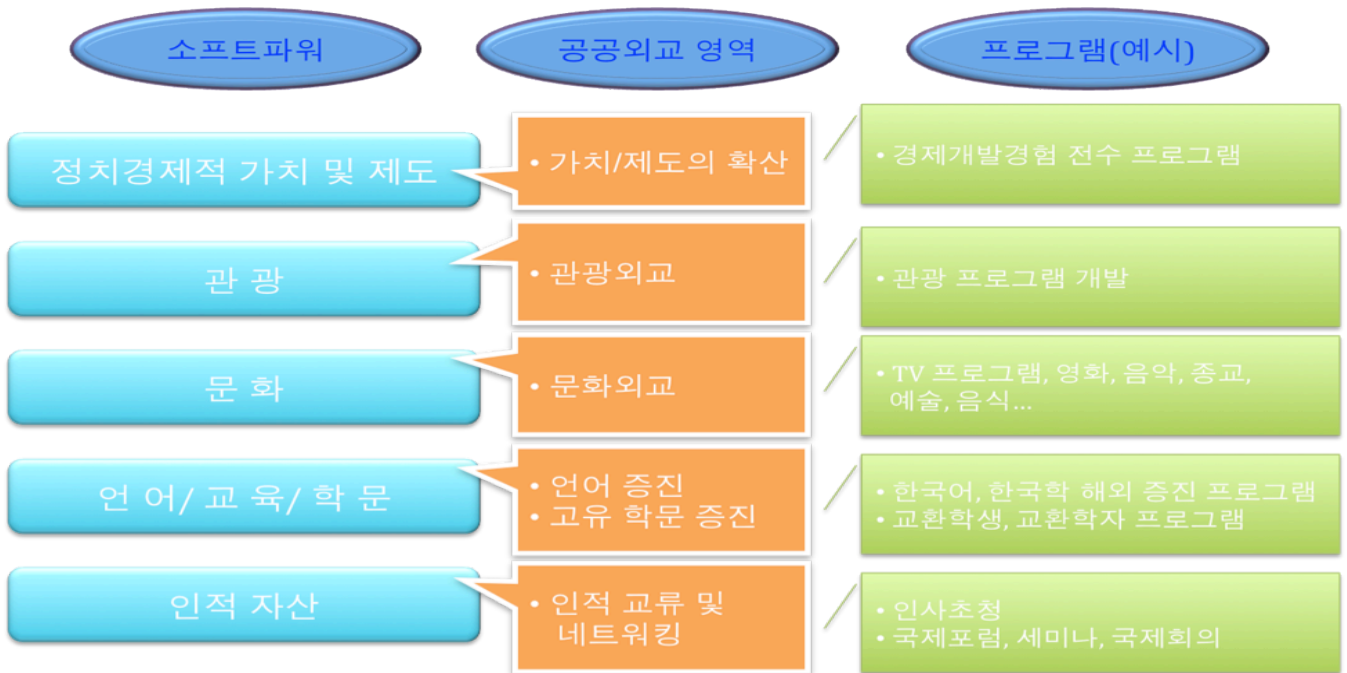
[그림 2] 공공외교의 자산/자원으로서의 소프트파워



출처: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⁵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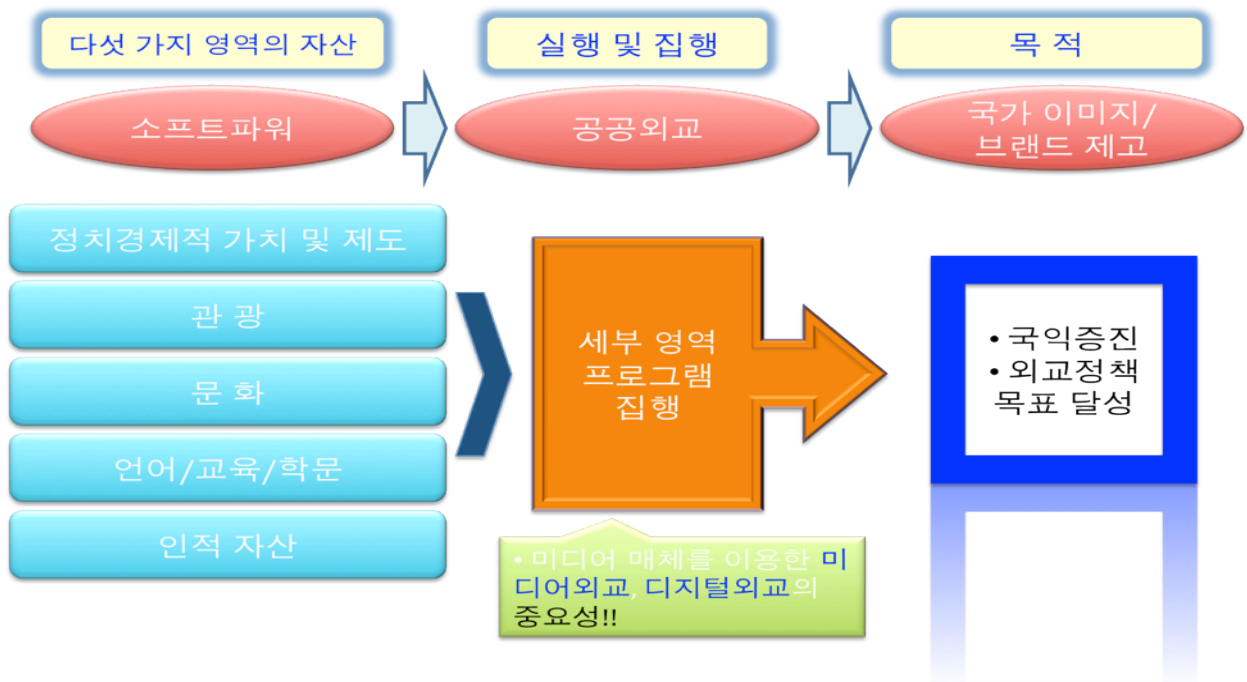
[그림 3] 소프트파워의 자산 종류에 따른 공공외교의 영역



[출처] 저자.

이렇게 볼 때 공공외교란 곧 자국의 이미지나 국가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민을 대상으로 자국의 소프트파워 자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실행 또는 집행과정’(implementation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 그리고 공공외교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국가브랜드/이미지 제고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흔히 문화적 유산이나 관광자원 등 소프트파워를 경제학에서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에서 처럼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원’(endowed resources)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개념 처럼 후천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가꾸어 나가는 측면이 중요하다. 특정 국가의 가치나 제도, 인적 자산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끊임 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문화나 관광자원 역시 새로운 패키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4] 공공외교실행과정(implementation process/flow)



[출처] 저자.

III. 패러다임 쉬프트 - 한국적 공공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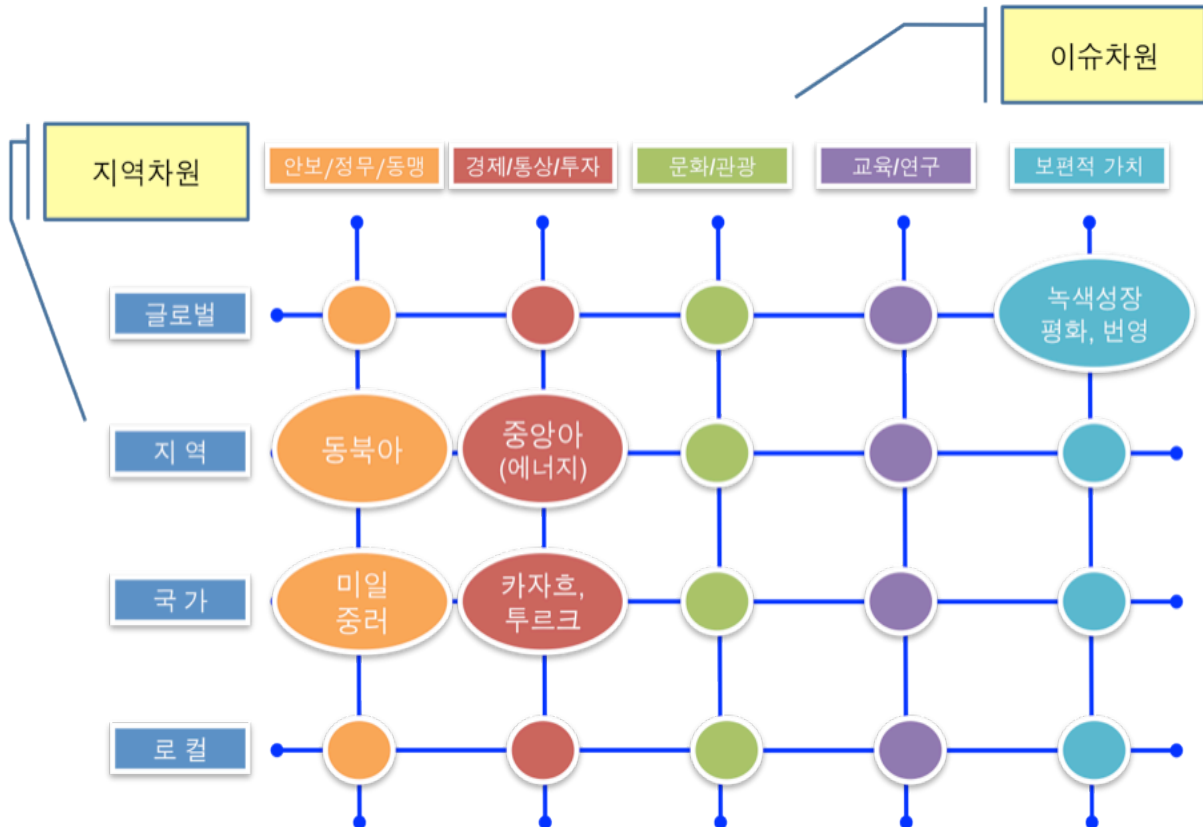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같이 정의된 ‘신공공외교’의 한국적 적용성은 무엇인가?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한국적 공공외교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특정 외교목표와 대상, 이슈에 따른 modular approach 이다. 민간을 포괄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전통외교의 경우에서 처럼 일사불란한 정책결정, 교섭 및 대화 등을 통해서 소기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나 효과는 산발적이 되기 쉽다. 산발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교목표와 수단, 주체, 매체, 대상에 따른 규격화된 공공외교 ‘정책모듈(policy module)’을 사전에 개발하고, 이러한 모듈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외교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을 국가, 지역 및 이슈 영역에 따라 세분화시키는 ‘grid approach’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의 외교목표를 [그림 5]에서 보듯 지역 및 이슈 차원으로

세분화할 때 각 이슈와 지역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겨나고, 동 교차점에서 각 이슈에 해당되는 대상이 부각되며 특정 대상에 대한 전통적 외교와 공공외교 차원의 정책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림 5] 외교정책목표의 grid: 지역 vs.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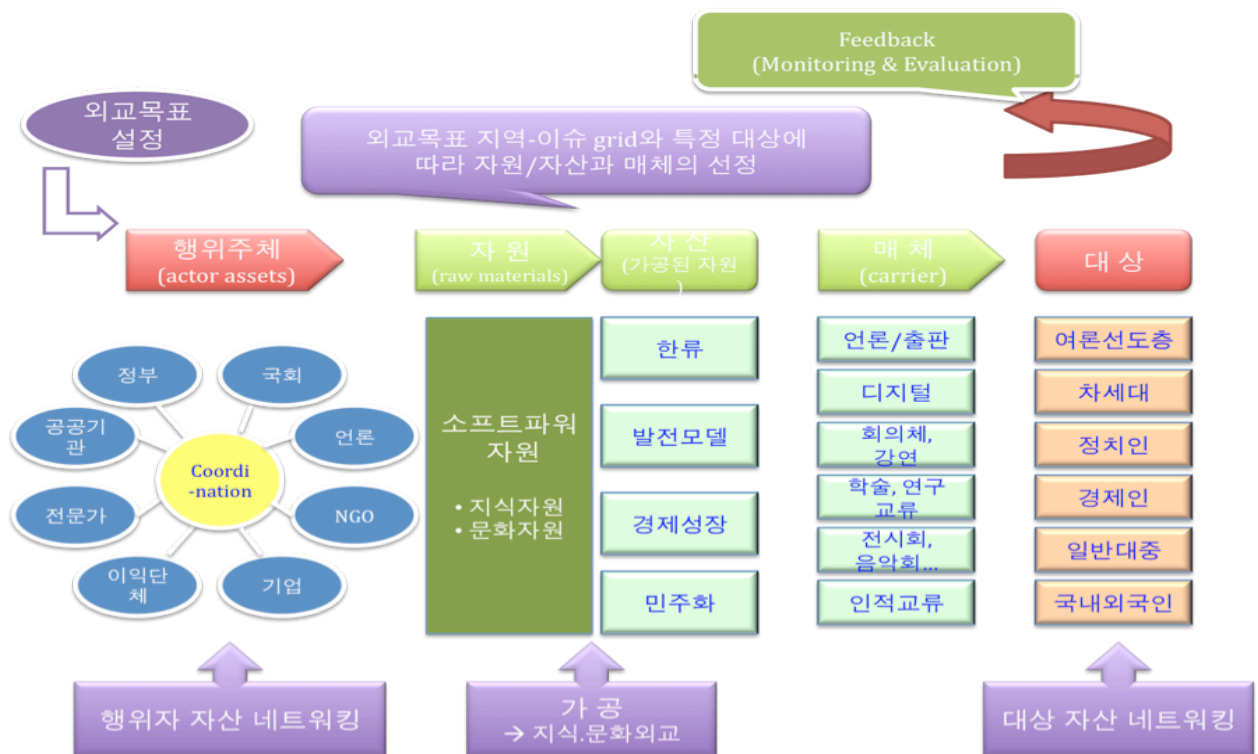


셋째,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에서 공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는 ‘network approach’이다. 민간이 외교의 주체는 물론 그 대상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외교 주체의 행위가 단발적이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 대상 역시 분산되어 있으므로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및 수요 양 측면에서 공히 이들 행위자 자산을 ‘인적 네트워크’로 구축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를 지속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즉 공공외교 주체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을 상호간 네트워크로 묶어서 그들의 활동을 ‘조정’(coordinate)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의 측면에서 역시 다양한 민간기관이나 개인들을 상호 연결시켜주고 이렇듯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manage)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가 일방적인 ‘부과’(imposition)의 형태로 될 수는 없으며,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임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IV.한국적 공공외교의 전략적 맵핑(Strategic Mapping)

이상에서의 논의에 근거해서 공공외교의 실행에 수반되는 단계별 전략 맵핑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물론 외교목표의 설정이며, 이는 위에서 제시한 ‘지역-이슈 grid’에 의거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operational goal) 형태로 제기되어야 한다. 예컨대 에너지외교의 경우, 대상 지역-국가로서 중앙아시아 지역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결정되면, 공공외교의 target group 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폐쇄적 독재체제를 갖는 국가의 경우 에너지자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 정치인 등이 중요하겠지만, 자국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폐쇄적 정책입장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비정치적 성격의 문화외교가 한국을 인식시키는 우회적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 6] 한국 공공외교 정책의 전략적 맵핑



두 번째는 공공외교의 주체들의 네트워킹 단계로서, 외교목표의 ‘지역-이슈 grid’와 특정 대상에 따라 관련 행위자 자산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정부-공공부문-민간부문의 협업과 공조체제가 핵심이되며, 행위자들간의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공공외교 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프트파워 자원(raw materials), 즉 지식자원과 문화자원을 가공하여 공공외교에 쓰일 수 있는 지식 및 문화자산(knowledge and cultural assets)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며, 이는 보편적인 가치 (예컨대 성장, 번영, 빈곤의 종식 등)에 부합하는 한국의 경험이나 제도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이와 같은 공공외교 자산을 대상 그룹에 적절한 ‘매체(medium 또는 carrier)’를 통해서 전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 그룹의 기관이나 개인들을 네트워크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В.Малолетко
(Тезисы доклада)**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В начале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хотелось бы подробнее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оценках в России значимости народной, или как ее еще называют –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Россия и концепция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нынешнюю эпоху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интенс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гуманитарные связи становятся важнейшим инструментом налаживан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достижения соглас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 решение именно этих задач должно быть ориентировано современное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являющееся проводником народной, или, как сегодня принято говорить,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меет ряд несомнен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ипломати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то та форма общения,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й народы проявляют свои чувства намного шире и глубже, чем позволяет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ный язык дипломатов, говорят без преград, искренне. А именно искренность больше всего скрепляет народы.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механизма в стране. Уровень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есомненно,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демократизма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общества в целом. Ее эффективное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извано быть инструментом "мягкой сил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народа в продвижении интересов, укреплении своего образа и авторитета за рубежом.

В практическом измерении такие цели могут быть эффективно достигаться посредством осуществления многообраз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гражд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и аудиториям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реал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х, нау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обменов делегациям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ми выставками, проведением музыкальных фестивалей, праздников искусств и т.д.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сказать, что: «Счастье на планете — это когда народы разных стран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Понимание народами друг друга возможно при принятии и толерантном отношении к ценностям, на которых базируется их мировоззрение. Донесение этих ценностей до сознания людей других культур и цивилизаций в формах,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ых они могли бы быть лучшим образом поняты и приняты — суть и задач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годня очевиден круг задач, в решении которых важная роль отводится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основном эти задачи касаются участия российски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деятельности ООН и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ктуал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в культуре, экономике и экологии, защиты пра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продвиж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мире, укрепления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приграничными странами, налаживания культурных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менов,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ружия, наркотиков, эпидемий и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явлений, профилактики экстремизма и ксенофобии.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российская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Росс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задач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бъ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рубежных партнеров с целью развития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укрепление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образа России за рубежом возложены на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СНГ,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гуманита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оротко,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Я представляю это ведомств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ш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открыто в Сеуле в 2007 году, однако, по раз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более чем на полтора года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ло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вновь стало работать в полноценном режиме только с июня 2009 года.

Народную дипломатию справедливо называют "мягкой силой". Именно человеческие связи помогают преодолевать барьеры и сложные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и у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основанного на принципе "от сердца к сердцу",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В 2010 году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тпраздновало 85-летие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шедшей в своем развитии путь от Всесоюзного общества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с заграницей, через Союз советских обществ дружбы и культурной связ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Росси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МИД России (Росзарубежцентр) до созданного осенью 2008 год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ойдя различные этапы в своем развитии, организация сумела накопить неоценимый опыт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формировать огромный круг партнеров, коллег, истинных друзей нашей страны на всех континентах планеты.

В декабре 2010 года в Москв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Д.А.Медведева был проведе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форум "Роль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уроченный к 85-летию юбилею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боте форум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с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з 70 стран мира, включая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изучения АТ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 господина Ом Гу Х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уществляя многоплан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 рубежом, Агентство, безусловно, опирается на тот богатейший потенциал, который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ми эт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а 85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еред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м стоит важная задача расшир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дание этой работе систе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ее новое осмысление, выработка свеж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одходов, учитывающих быстро меняющиеся реал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Деятельность Агентства направлена,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за рубежом объектив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ее материальном и духовном потенциале, сохране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языков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России в мире.

Эту работу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едет посредством организации активной 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о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за рубежом — российских центров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 которые действуют сегодня в 73 странах мира. Их количество растет год от года. Только в 2009-2010 годах были открыты российские центры в Азербайджане, Армении, Белоруссии, Иордании, КНР, Молдавии,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бхазии, Южной Осетии, Словении, на Куб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ет актив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крытию в рамках Года России в Италии и Года России в Испании в 2011 году российских центров в Риме и Мадриде, работа по расширению кадровой и 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во многи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твержденным планом к 2020 году российские центры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буду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более чем в 100 странах мир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ешает задачу создания за рубежом центров,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полноценный диалог и взаимообмен культу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ридание нового качества 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го формата всему комплексу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ближнего и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наполнение его новым содержанием.

Наша конечная цель — превращ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центров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за рубежом в полномасштабны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культурные цент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ля служения благородному делу развития дружб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На 2013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ткры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центра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ладает реально действующей системой поддерж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за рубежом. Язык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средством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охран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ед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служит цементирующим средством огромного "русского мира", а изучение его иностранцами дает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глубже познать российск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лучше понять наш народ.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работало Концепцию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ы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11-2015 годы,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ую ведущую роль агентства в реализации е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части.

Именно талантливые российские писатели, поэты, литераторы,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могут содействовать познанию России иностранцами, имеющими возможность знакомиться с лучшими образцам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Ведь нигде так не концентрируется все лучшее в языке, как в литературе.

Хотел б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что в век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новое обши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ткрыто на просторах Интернета.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едет планомерную работу с социальными сетями, присутствуя в таких сетях как «Facebook» и «Twitter» и привлекая внимание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к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глобальном масштабе. В рамках ресурса «Livejournal» открыта дискуссионная страница "Россия глобальная".

Сегодня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над созданием отвечающей современным реалиям комплекс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в мире образа современной и успешной России, новой моде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пираясь на лучшие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 раз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подоб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ряду с зарубеж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начимую роль призваны игр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ченые, деятели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и религиоз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Большую помощь работе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казывает 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объединен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зданное в 1992 г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более 70 российских обществ дружбы России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Ассоциация координиру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ходящих в нее на добровольной основе обществ или ассоциаций дружбы, представляет их интересы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ах и друг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Говоря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направле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читаю важным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егодня нет ни железных занавесов, ни дефицита каналов коммуникаций. Ее питают высшие ценности, свойственные человеку: желание жить в ми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бром соседстве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стремление к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Именно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привносит в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равственную основу, обозначает вектор желаемого развития мира, снимает барьеры в диалоге цивилизаций, является действенным механизмом в привлечении мир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к новым вызовам и угрозам человечеству, решению глобальных проблем, начиная от тематики защит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до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нашей цивилизации 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Россия и Корея – являются близкими соседями и актив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ют связи по самому широкому спектру направлений, от новых вызовов и угроз,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экономики и торговли д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артнерство с Южной Кореей имеет для нас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ценность.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возрастающую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ктивность наших стран по развитию разносторонних связей на площадке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2010 году наши страны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праздновали 20-летнюю годовщину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аудитор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заимном познании культур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и,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хоро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на регулярной и долговременной основе.

Важными событиями стали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К и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прошедшие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по ноябрь 2010г.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редставл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выступл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балетного и опе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нцертов оркестров классической и джазовой музык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их зрителей привлекли показ мод российских дизайнеров, неделя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в рамках Пу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Аншлаги в ходе гастролей в Южную Корею балетной труппы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и совместного гала-концерта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опе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которыми был завершён Фестиваль росс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К,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граждане РК серьёзно воспринимают российскую самобытную культуру. Поэтому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культур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является мощной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Россия придает форуму «Диалог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линии гражданских обществ,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которого было успешно проведено в Сеуле в ноябре 2010 года, предоставив нашим двум странам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по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площадке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которое подтвердило искреннюю готовность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по вопросам, имеющим особую историческую и духовную ценность для народов наших стран, стало возвращение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Росс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музеем

г.Инчхон флага крейсера «Варяг». Реликвия была передана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и Д.А.Медведеву в ходе его ноябрьского визита в РК.

В 2010г.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мероприятиям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65-летия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круглый стол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боевое братство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три тематических фотовыставки, а также два кинопоказа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о ВОВ, привлечших внима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Уверен,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ынешнему поколению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ить не только объектив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вкладе в России в мировое развитие, но и понять истинную глубину души народа нашей страны.

Россия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хорошими темпами наращ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а площадке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Успешные усилия наших стран по развитию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создали весомый стартовый потенциал для придания двусторонним отношениям характе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на гуманитарно-обществе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месте с тем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еще немало.

Хотелось бы, например,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РК,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России, пока еще имеют весьма поверхност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России, ограничивающиеся, в основном, признанием ее вклада в мировое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сущная задача для нас – донести до корейцев информацию о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ее богатейшем нынешнем культурном,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научном потенциале и искреннем настрое на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 близким соседом – Южной Кореей. В решении этой задачи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собая роль должна принадлежать русистам-экспертам по России. Бесспорно, реализация инициатив по выводу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ражданскими обществ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более глубокий уровень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с участием та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еданных делу укреп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Потенциал и перспективы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удут зависеть во многом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продуктивно мы сможем обеспечить развитие молодеж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ока еще юное поколение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будет решать будуще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расширению масштаб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одписании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России и РК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м признании сертификатов о высшем образовании. Мы уверены, что его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 возможност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учебными заведениями наших стран.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безусловно, является наука, котора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обеспечивае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в мировом масштабе. Объединение науч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аших стран способно существенно укрепить позиции 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оцесс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и глоб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решении ключевых проблем развития, стоящих перед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являясь главным проводни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сфере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за рубежом, ставит перед своими зарубеж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ми и российскими центрами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задачу не только сохранения и приумножения роли России как одного из мировых центров культуры, но и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для а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в област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инноваций.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справедливого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основанного на коллективных началах в решен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роблем, верховенст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равноправных и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в мире.

Донесение по каналам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до широкой заруб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собенно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богатейшей духовной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й всегда лежали принципы человеколюбия и толерантности, будет, несомненно, служить достижению этих целей.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клад на XV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евед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Баллод Жанна Оттовна

**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тоги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Ballod J.O. Two Decades of Public Diplomacy of Russian Fed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mmarizing results

Public diplomacy appeared to be one of priority directions in the new foreign policy Concept of Russian Federation signed by the President of Russia D.A. Medvedev in July, 2008. The given article highlights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Russian public diplomac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wo decades sinc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Russia has overcome negative perception of the country as successor of USSR cold-war policy. Mechanisms of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education, science have been developed from scratch. The author not only analyzes achievements and failures of public diploma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Republic Korea but also gives recommendations for public diplomacy strategy taking under consideration modern South Korean society, the Korean culture and political realities.

Содержание

I. Введение. Уровн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II.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 уста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III.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1990-е и «нулевые» годы

1.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обзор
2.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 уровне «ежедне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3.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4.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IV.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диалоге двух стран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1.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обзор

2. Мероприятия «ежедне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2.1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2.2 Освещение диалога РФ – КНДР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3. Новый подход 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3.1.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Русский мир

3.2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3.3.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 делов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4.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4.1.Создание сетей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4.2.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ак ресурс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V. Итоги

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тоги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I. Введение. Уровн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овой концепц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писа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Д.А.Медведевым в июле 2008 года, была назва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котора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важное средство налаживан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достижения соглас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ⁱ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 Лаврова,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новится важны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м ресурсом,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динамичных сфер мировой политики.»ⁱⁱ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растет понимание ро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звивать институты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беспечив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циональны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обеспечении российски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тересов.

Цель данного доклада – подвести итог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 рамках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обозначить векторы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В своей работе я буду опираться,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определения и концеп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редложенные американскими политологам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активно изучается в США с середины 60-х годов, а термин «public

diplomacy», который переводится в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как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ли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был введен в обиход в 1965 году американским дипломатом Эдмундом Галлайоном в отношении способ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достиж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целей или продвижение ценностей своей страны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ообществе через участие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фондов и прочих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определ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ется традиционной офици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многообраз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гражд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и аудиториям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культурное и гуманита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ы специалистами, экспертами, литературой, студентами, культурными, научными делегациями, радио и телевидение .

Для наиболее полной картины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обзор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будет дополнен аналитическим анализом. Профессор Гарвар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жозеф Най описывает нов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дипломатию как отказ от односторонней коммуникации и предлагает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выстраивания “двух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исходя из трех измерений или уровней , которы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эффекту длительности этих отношений ⁱⁱⁱ.

При этом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 первом уровне**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ежедневн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с целью разъяснить те или иные решения в области домашней ил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 Джозефу Наю –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цель которой – обозначить темы и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юда можно отнести встречи ключевых фигур бизнеса и политики,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ие обмены, форумы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здание площадок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и выработки решений. Эффект от мероприятий уровн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может длиться недели, месяцы и даже годы.

Мероприятия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уровней направлены,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то, чтобы убед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зарубеж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элиты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лидеров предпринять конкретные действия в поддержку необходим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Для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я лидерам нужна определен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инициатив своим населением. На это направл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которые рассчитаны на более широкую аудиторию и имеют наиболее дл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воздействия.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выстраива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диалога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через личные контакты в ходе обменов, семинар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 благодаря доступу к средствам масс-меди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ц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этом уровне – выстроить сеть (network)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контактов.

II.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 устано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ринципы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ояли у истоков устано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ак как именно неофициальные каналы дипломатии сыграли суще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конце 80-х годов. Детальному анализу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диалога и участию в нем как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ругов посвящен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их востоковедов : В. Ткаченко, Л. Забровской, Г. Толорая, В. Торкунова, А. Воронцова, В. Михеева и других.^{iv}

По словам бывш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и объеди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 Чон Чже Муна, первые контакты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о время Сеульской Олимпиады 1988 года, которая стала толчком к сближению СССР и Южной Кореи.^v

Официальны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онтактам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и серия научных контактов.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в 1988 году офи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становили ИДВ РАН и руководство Ха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vi}. В том же году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зам.директора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 Дэ У, а осенью 1989 год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Сеул делегация ИМЭМО подписала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с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в котором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основные принципы развития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30 сентября 1990 года, в Нью-Йорке министры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 после распада СССР гла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в Договоре об основах отношений, подписанном в ноябре 1992 года во время визита в Сеул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Н.Ельцина.

III.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1990-е и «нулевые» годы

1.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обзор

1990-е годы были временем налаживания контактов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т период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контакты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академическими кругами и официальны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налаживаются программы обмена студентами.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интереса к изуч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факультет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ткрыты в 30 университетах и 6 колледжах.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области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туризма. Жители Южной Коре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информацию о России из «первых рук» и тем самым утоли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голод» в отношении страны, с которой на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и разорваны культур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вязи.

Одним из вызовов дл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о **преодоления негативного образа нашей страны** как наследницы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СССР – противника РК времен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союзника КНДР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передача в 1994 году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 подготовке к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была благосклонно восприня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как символический жест.

Налаживан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упрочнению доверительных связей, несомненно, препятствовала и «теория о русской угрозе», о которой писала Т. Симбирцева: негативное восприятие роли России в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XIX-начала XX веков.^{vii}

На развенчание этого мифа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ряд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дчеркивающих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стории.

Так, в 2001 году в рамках «популяризации» поддержки Россией народ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Ан Джунгын и антияпонское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е движ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viii}, посвященная событиям 26 октября 1909 года, когда в результате заговора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сил Кореи в г. Харбине (Китай) был застрелен генерал-резидент Кореи Ито Хиробуми. В том же году в Приморье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мемориал на клятвенном месте корейского патриота Ан Чжун Гына и 11-ти его соратников.

В 2002 году в Петербурге прошл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памяти первого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Кореи в России принца Ли Бом Джина. 30 июля на доме по улице Пестеля, в которой располагалась резиденция первого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Кореи в России, была открыта мемориальная доска, а на Северном кладбище, где похоронен Ли Бом Джин, был открыт памятник корейскому дипломату.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ризван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и осужд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ей захватнических устремлений Япон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начале XX века.

Т. М. Симбирцева отмечает,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возросших научных обменов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ругими точками зрения на ис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ix} С целью устранить ошибки и искажения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в 2002 году в Сеуле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первый том расширенного каталога россий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переводе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историком Пак Чонхё.^x

Нельзя не признать, что на первом плане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 диалоге этого периода стоял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вестка. Поэтому нестабиль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езультате миров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1997-1998 годов, несбывшиеся ожид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г друга привели к некоторому замедлению в развит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ресур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обмены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У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столкнувшихся в конце 90-х годов с проблемой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упал интерес к изуче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е был решен вопрос о взаимном признании дипломов, что также осложняло студенческие обмены.

В 1998 году арест сотруд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Аз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алентин Моисеева по обвинению в передаче секретной информ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зведке стал прологом целой серии ударов, которыми обменялись российская и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были омрачены «шпионским скандалом», в сфер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 концу первого десятилетия, в целом,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благодатная почва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зданы каналы для контактов, определены направл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 первом уровне «ежедне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ежедне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оводя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с начала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здания посольства в 2001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вольно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и брифинги, на которых разъясняют позицию РФ и информируют о важных событиях в российской внешней и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3. Второй уровен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На этой стадии выстраива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успехи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о созданию площадок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конкретных областях нельзя не недооценить.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ле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контактов были созданы эффективные

механизмы для разработки стратегий и конкретных проект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елового, науч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жалуй, одной из самых успешных областей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является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14 декабря 1990 год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был создан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совместный комитет п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собирается в Москве или Сеуле для координац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этой области.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сыграли и «академические» каналы по обмену мнениями. На базе ИДВ РАН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МИД РФ стали регуляр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форумы, где с специалисты обеих стран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конец,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римеч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уровн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тал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поезд дружбы", когда в июле 2002 года более 300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политиков, бизнесменов, ученых,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отправились в совместное двухнед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в Москву. В городах, где делегация делала остановки, проходили семинары, деловые «круглые столы», презентаци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знакомство с регионами России, демонстрац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фильмов, фотовыставки. В пу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йской и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ловой, науч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элиты получили прекрас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сти дискуссии и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заложив тем самым основы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4.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Здесь,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ось бы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обменах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потому что они апеллируют к наиболее широкой зарубежной аудитории без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возрасту, полу и социальному статусу.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менно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благодар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у эмоциональному воздействию на зрителя оказывают длительный эффект.

Если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шим странам пришлось начинать работу практически «с нуля», то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предшествовал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Корейская публика была в 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знакома с рус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ой, литературой, балетом. Так,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им Хен Тхэк, отмечая историческую связь России и Кореи, сказал, что «корейская интеллигенция через произве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читали Россию близкой страной».^{xi}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оссийски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приезжавшие с гастролям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значально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ь апеллировать к достаточно широкой аудитории; корейская публика неизменно встречала их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При этом россий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Корее в первое десятилет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довольно полно. Южнокорейцы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как лучш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симфонической музыки (Хворостовский, Гергиев), знаменитых балетных трупп (Большой и Мариинский театры, труппа Б.Эйфмана), так и росси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ой – клоунадой (московский театр "Лицедеи", "Снежное шоу" Александра Полунина), детскими кукольными спектаклями (Театр кукол имени Образцова), цирком и ледовыми шоу (труппой Игоря Бобрин "Большой балет на льду").^{xii}

IV.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в диалоге двух стран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1.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й обзор

В 2004 году с назначением С. Лаврова новым главой МИД ,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й курс РФ был подкорректирован исходя из нов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альностей и направлен на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диалог с целью утвердить пози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 мировой державы.

В этом же году 2004 году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ышли на уровень доверитель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о широкому спектру двусторонн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просов.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в Кремл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Но Му Хена зафиксировать новое качество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декларации.

В 2008 году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Ли Мен Бака страны подняли свои отношения до уровн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а в 2010 году отметили 20-летний юбилей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торое десятилет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тало периодом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обменов и реализации конкретны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 науке,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экономике и торговле.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м диалоге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грает все более заметную роль, что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работах К.Асмолова^{xiii}, Бугай Н.Ф.^{xiv}, Ким Ен Уна^{xv}, Волошина С.О.^{xvi}, Кирьянова О.В, Гуенкова В.И.^{xvii}, Т. Симбирцевой, Ю Сэ Хи, Ган Бон Гу^{xviii}, Хам Ен Чун^{xix}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темы взаим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друг

друга, преодоления восприятия России через призму мифа «о российской угрозе», проблемы отражения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СМИ, расшир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гулярно освещались н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2. Мероприятия «ежедне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2.1.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На наш взгляд,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нститутов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 корейскими СМИ оставляет желать лучшего.

Так, по оценке некоторых экспертов, срыв подписания в ноябре 2005 года во время саммита АТЭС в Пусане подготовленного проекта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был обусловлен утратой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доверия к ОАО «Газпром» и к России в целом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нфликта между ОАО «Газпром» и НАК "Нафтогаз Украины" по поводу цен на газ и ставок транзита.^{xx}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газовый конфликт широко освещался как зарубежными, так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СМИ; при этом российская точка зрения часто игнорировалась, нивелировав образ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как надежного партнера.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в 2010 году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ицилируемых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мероприятий в честь 2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е находили должного отражения в корейском меди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реди них - кинофестивали, посвященные 65-летней годовщине победы над Германией, передача России знамени Варяга и реликвий из Инчонского музея.

Так,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The Korea Times отметила низкий интерес у корейской публики к организованно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сольством РФ в РК семинару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контакты в 1900-х годах»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ования 20-лети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ходе семинара российск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

дипломаты планир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ь малоизвест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е о тесных связях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 тем самым, опровергающие теорию о российской угрозе .^{xxi}

Не последовало должной реакции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 поводу трагической смерти весной 2010 года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роходивших обучение в Росси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российской прессе вызвали большой резонанс карикатуры на теракт в Московском метр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 апреле 2010 года в газете The Korea Times.^{xxii} Кроме того, эта же газета разместила авторскую колонку канадского журналиста Гвинна Дайера, который предложил читателям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вказских экстремистов не как террористов, а как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 мн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эксперта Константина Асмолова, которое он высказал в одном из интервью ,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и речь шла «не о преднамеренной провокации, а о глупости и непонимании российских реалий».^{xxiii}

2.2. Освещение диалога РФ – КНДР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кладыв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браз России благодар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й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политике РФ в отношени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3. Новый подход 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3.1.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Русский мир

Осозна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ро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ак важного инструмент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 нашло отражение в создании н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осуществляющ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этой области. Иллюстрацией нового подхода России к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ала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созданных по у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и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гуманитар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Корее работает в тесн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Посо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юля 2007 года в науч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ях с целью формирования у корейской аудитории объективн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ее материальном и духовном потенциале, о содержании внутри-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страны.

Фонд «Русский мир» открыл в 2010 году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3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 при Сеу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ре , а также при Пуса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Деятельность фонд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поддержку программ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за рубежом.

3.2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продолжают интенсивно развиваться связи в науке. Российские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ыставках. Открываются совместны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центры: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е (декабрь 2006 г.) ,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и в Москве (март 2007 г.) и другие.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 старыми действующими площадками по обмену мнениями и планами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Среди них можно назвать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диалог, состоявшийся 29 сентября 2010 года в рамках III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форума.^{xxiv}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о итогам опрос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который был проведен с 28 сентября по 12 октября 2010 года среди 200 участник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2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Ф и РК, большинство респондентов(61%) указали 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сфере как юююююю. При этом 38%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в качеств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вместные разработки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космоса и авиастроения, а 23% -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3.3.Стратегическ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в делов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за период с 2002 по 2008 год увеличился в 8.1 раза , и к 2011 году вышел в стоимостном выражении на отметку более 11 млрд долларов, динамика рост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заметно отстает от таки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еров РК, как США, Япония и Китай.^{xxv}

Для ускорения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площадки и бизнес-форумы,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инструментом развития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и 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Так, в 2011 году был создан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Деловой Совет (KRBC – Korea-Russia Business Council)**,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объединить бизнес-элиту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двух стран, а также совместному преодолению имеющих препятствий.^{xxvi}

4. Третий уровень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чных связей

4.1. Создание сетей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собенностью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 Южной Корее можно назвать формирование сетей (networks) свободного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идеями и знакомства с национальными ценностями. Понятие сети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понятием д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Так как современ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двусторонняя коммуникация, то сети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ыполняют функ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и вовлечения их участников в совмест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зданию такой сети способству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обмены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таких сетей можно наз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ушкинский дом», «Эдюран». Помимо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учащиеся через совместные поездки в Россию, участие в концертах, общение в блогосфере вовлечены в процесс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российскими ценностями.

Другое направление успеш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участие русской школы балет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алетной школы в Корее.^{xxvii}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балет получил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Корее: открыто множество студий и кружков для детей, артистов балета готовят во многих колледжах и университетах. Н.Цай в работ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балетном искус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отмечает большой вклад российских педагогов.^{xxviii}

Неизменно упрочняютс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е связи в спорте. Теннисистки Мария Шарапова, Анна Курникова, голкипер Валерий Сарычев, самбист Федор Емельяненко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Южной

Корею. В 2005 году Сарычев, принявший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сновал первую школу вратарей.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созд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ассоциации самбо,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яет около 70 секций самбо, действующие во всех провинциях страны.⁶

Наконец, на современной этапе возросло число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России и число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роходящих обучение в РК.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попытки создать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яющие молодежь обеих стран – например, Форум молодеж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4.2.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ак ресурс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претерпевает кор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 из гомогенного по своему составу оно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Феномен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также находит отклик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оличество россиян,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ближается к 10 000; возросло числ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аков.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являются эффективными «посл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через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общение с ними корейские сверстники узнают о культуре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х ценностях и язык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К, - активные «проводники»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н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о многи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едставляя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Традицией стали ежегодные «Русские слеты» на острове Анменд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сообществом российских инжене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⁶ Korea Sambo Federation <http://www.koreasambo.com/subpage.php?p=m32>

компании Самсунг. Российская футбольная коман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участвует в Сеульской лиге любительских команд. Рестораны русской кухни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м «русском городе» в районе Тондемун давно полюбились корейским гурманам.

V.Итоги

Двадцати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ое широко отмечалось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2010 году – время не только подвести некоторые итог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Ф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и определить векторы развития на будущее.

Современ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дипломатия – прежде всего, двусторонний диалог. Поэтому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мероприятий и разработки стратегий в рам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должны учитываться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особенности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истор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даже внутривластная и соци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В этой связи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еред Россией стоят следующие задачи:

- улучшить имидж страны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державы;
- углубить знание о российских реалиях и культуре;
- преодолеть миф о российской угрозе;
-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растуще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налад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граждански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Для достижение этих целей необходимо:

- увеличить присутствие российского блока в интернете, блогосфере и СМИ;
- расширить целевую аудиторию, вовлекая в мероприятия более широкие слоя населения
- учитывая тенденцию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ивлекать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ак ресурс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ⁱ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new.s.kremlin.ru/acts/785>

ⁱⁱ Стенограмма выступлени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В.Лаврова на откры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форума «Роль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развит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сква, 16 декабря 2010 года

ⁱⁱⁱ Joseph S. Nye, *Daily Star*, <http://www.hks.harvard.edu/news-events/news/commentary/smart-power-needs-diplomacy>

^{iv} Ткаченко В.П. Корей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Доклад на заседани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Госдумы РФ//Вестник нау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МЭПИ РАН.-1994.-№; V.P.Tkachenko. Korean Peninsula and Russia's Interests. Moscow. Orient Literature Pub. House, 2000, p.165.; Забровская Л.В. Россия и Корея: от конфронтации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1970-1990гг)-Владивосток, 1996; Воронцов А.В. – to be added

^v Артем Санжиев « Посланник в Северную Страну: Корейский политик рассказал о первых контактах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www.rg.ru/2010/09/30/korea-sssr-site.html>

^{vii} Симбирцева Т.М. Современная (1984-2001 гг.) южнокорейск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о характере раннего периода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о 1895 г.).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САА при МГУ, 2002.

^{viii} <http://www.dvgu.ru/news/shownews.php?a=show&id=140>

^{ix} Симбирцева Т.М. - Современная южнокоре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о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x Росиа мунсо погвансо соджан Хангук кванге мунсо ёякчип (Собрание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Корею документов русских архивов в сокращении). Составитель-переводчик-Пак Чонхё. - Сеул: Фон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2002. - 844 с.

- ^{xii} Инна Ким, Русские куклы в Корею,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23.04.2007, <http://vestnik.kr/culture/289.html>
- ^{xiii} Асмолов К.В.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09.06.2005, <http://vestnik.tripod.com/novosti05/060902.html>
- ^{xiv} Бугай Н.Ф.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Россия в 1990-е годы – начале XXI в.: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взаимовосприятия»,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уроки истории, ИДВ РАН, Москва, 2010 с.91-110
- ^{xv} Ким Ен Ун «Образ России и россия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Россия и Корея: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ДВ РАН 2008, сс.97-117
- ^{xvi} Волошин С.О. Об освещ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тематики в школьных учебниках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оссия и Корея: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ДВ РАН 2008, сс.117-130
- ^{xvii} Кирьянов О.В, Гуенков В.И. «Особенности 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Россия и Корея: проблемы улучшения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государств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ДВ РАН 2008, сс.117-130
- ^{xviii} 유 세 희 · 강 봉 구 한국인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제 18 차 Russian Federation and Republic of Korea: Prospects for Interaction after 2008 (한양대학교)
- ^{xix} Ham Young Jun, Evaluations on the 20 Year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Plans for Further Development: A Perspective from the Korean Side
- ^{xx} Д. Верхотуров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еульский Вестник, № 103, апрель-май 2006 г., <http://vestnik.tripod.com/articles/korea-russia-gas.html>
- ^{xxii} http://www.koreatimes.co.kr/www/news/special/2010/07/176_64382.html
- ^{xxiii} http://www.newsru.com/world/06apr2010/cartoons_fired.html 6 апреля 2010 г.
- ^{xxiv}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инновационный диалог <http://www.csr-nw.ru/content/announce/default.asp?shmode=2&ids=21&ida=2559&gpage=1>
- ^{xxvi} Артем Санжиев, Сеул Москва и Сеул создали деловой совет <http://www.rg.ru/2011/02/21/sovet-site-anons.html>
- <http://top.rbc.ru/economics/10/11/2010/496197.shtml> Цай, Надежд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балетном искус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реф. Канд.дисс.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9
- ^{xxviii} Цай, Надежд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ус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анцев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в современном балетном искус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реф. Канд.дисс.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9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 이상과 현실

유 민

(전 주러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순 서

1. 러시아에서의 공공외교 환경
 - 1.1 한국 공공외교 환경 변화
 - 1.2 대러 공공외교의 수용성·호혜성
2.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의 실제
 - 2.1 주러 한국문화원의 공공외교
 - 2.2 주러 한국대사관의 공공외교
 - 2.3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3.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의 한계
 - 3.1 한국, 러시아측의 문제
 - 3.2 미래 대러 공공외교의 방향

별첨 : 대러 공공외교 추진계획 (실례)

1. 러시아에서의 공공외교 환경

1.1 한국의 공공외교 환경 변화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는 2010년 양국 수교20주년을 계기로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수교 20주년 이전의 공공외교는 양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전문가집단이나 기업 등의 참여를 요청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 민간부문들이 공적 외교영역에서, 또한 그 반대로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활동의 영역이 국가이미지 제고와 연결되어야 하는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진 않았다는 것이다. 내용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러 수교20주년을 계기로 공공외교 활동의 내용과 방식, 주체나 대상 등에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공외교 활동의 영역도 다채널, 다원화되기 시작했다. 민감한 양국 현안들이 언론인, 학자들 사이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아시아에 비해 발동이 다소 늦게 걸리기는 했지만 이른바 ‘한류’가 유럽 러시아 문화와 접목되기 시작했다.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대러 공공외교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주체와 대상에서였다. 대사관 공공외교 영역, 국제교류재단 정도에 의존했던 공공외교의 주체는 러시아 진출 기업, 대학, 학생, 한인회, 전직관료, 종교나 체육단체로 다양해지고 있다. 외교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 관 주도의 공공외교에서 탈피해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관에 협력을 구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나타났다. 협력도 ‘정부-민간’이라는 평면적인 방식에서 ‘정부-NGO-국제기구-기업’식으로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공공외교 형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 수교20주년 전후에는 주재국의 한국관련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프레스클럽’이 만들어졌고 이어 언론교류를 크게 확대해나갔다. 박물관, 도서관, 대학으로 지평이 넓혀지면서 문화예술 행사에 양국의 젊은이들이 함께 호흡하는 행사들이 늘어났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공공외교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도 매우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양국정부의 예산을 들여 상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 행사성 세미나 등 전통적 공공외교 방식이 주류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가 성숙한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외교의 직접적인 현안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다소 민감한 독도와 동해외교를 언론과 대학으로 우회하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 학계와 연구소 인사를 설득하며 한국입장에 대한 동조를 구했다.

양국의 현안 외에도 젊은 음악도들이 참여하는 한러 공동 오케스트라 연주회, 한국의 전통음악과 러시아의 서양음악이 만나는 컨서트, 러시아 대학에서의 한식강좌 개설, 온라인 게임대회 등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일방적이었던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의 지형이 다양한 부문으로 넓혀졌다.

최근에는 한국의 강력한 IT문화를 기반으로 트위터의 개설, 블로그 확장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외교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도 대러 공공외교 부문에서의 중요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에서의 언론환경을 감안할 때 향후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한러간 소통은 한국의 공공외교 영역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1.2 공공외교 영역에서의 호혜성과 수용성

외교의 특징은 ‘주고받기’이다. 공공외교의 영역도 외교의 영역인 한 상대국과 ‘주고 받기’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는 러시아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한국의 공공외교를 러시아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반응하며, 상호 호혜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이다.

러시아는 짧은 자본주의 역사와 함께 중산층의 벽이 그리 두텁지 않다. 여기에 러시아는 서양의 지적발달사와 궤를 달리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그리고 독특하게 자신만의 문화를 전승 발전 시켜왔다. 문학과 고전음악, 발레 등 일부 예술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인권에 무게를 두는 서구식의 시민사회는 자본의 발달과 함께 발전단계에 있으나 공공외교를 수용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은 완비된 셈이다. 최근 메드베제프 대통령체제하에서는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각 부문에 경쟁력 요소가 강력하게 도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문화·학술·예술부문에서도 새로운 신진세력이 등장하고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외교 환경이 크게 발전되고 있다. 물론 대러 공공외교의 중요한 부문인 언론도 자본력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외교 확산을 위해서 러시아는 수용성과 호혜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러시아 주요 대학, 박물관, 도서관, 특별한 공연장, 각종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거꾸로 정부 부처나 기관을 통해야만 공공외교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¹

또한 자신들이 기존에 해 온 관행이나 관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러시아 관료주의, 짧은 역사의 시민사회와 중산층의 형성의 미흡, 러시아의 독특한 전통의 고수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특별한 공연장, 대규모 스포츠 센터 등 공공외교가 영향력을 미칠만한 기관이나 조직은 대부분 국가 소유물이 많다. 대학이나 공공단체의 재정의존도가 적지 않은 탓에 국가기관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잔존해 있는 사회주의 식의 관료주의 관행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최대 반정부 신문인 ‘노바야가제타’와 직접 인터뷰를 행했던 파격적인 예가 있기도 하다.

러시아의 수용성 문제와 함께 호혜성도 짚어봐야 한다. 짧은 수교역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외교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한러 교류행사의 경우 외관만 교류형태를 띠 뿐 내용에 있어서는 상호 호혜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한러 수교20주년 계기로 열린 문화예술행사의 상당부분은 한국정부의 예산이 훨씬 크게 투입되어 개최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한러 공동발레 공연과 관련하여 교류가 한 차원 높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지만 기실 그 내용은 한국정부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² 그러나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최근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각 부문에서의

¹ 물론 정부가 문화외교에 개입하고 정부를 통해 문화외교를 펼치는 것을 반드시 공공외교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러시아에서의 축제에 한국 민간단체 참여 가능여부를 러시아 정부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우리 문화당국자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² 지난해 말 국립발레단의 볼쇼이극장 공연은 대규모의 한국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최된 행사지만 행사의 결과를 즉 공연수입 등은 볼쇼이 극장이 가져갔다.

개혁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공공외교의 교류와 수용성에 있어서 매우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의 실제

2.1 주러 대사관의 공공외교

주 러시아 대사관의 공공외교 주체는 문화홍보과와 영사과가 주로 이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원장을 겸하고 있는 홍보관, 국제교류재단 파견관, 교육관, 외교서기관이 주축이 되어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이들 가운데 홍보관³은 대사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언론, 문화 예술계, 학계와 연결되어 대부분의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주러 대사관의 가장 두드러진 공공외교 활동은 현지 언론을 상대하는 대언론 활동이다. 주러 대사관은 2008년부터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러시아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정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한러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 한러 언론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프레스클럽’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코리아 프레스클럽 기자들은 러시아 3대통신 가운데 하나인 리아노보스찌 통신의 국제안보 담당 기자인 이반 자하르첸코를 첫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는 서울과 평양특파원을 거쳤으며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국제 전문기자였다. 코리아프레스클럽은 지난해 녹색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각종 정책세미나에 일부 회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공공외교활동을 펼쳤다. 주러 대사관은 ‘코리아 프레스 클럽’⁴ 과의 정례 모임을 비롯하여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브리핑, 대사와의 대화, 주러 문화원내 프레스클럽 운영,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러시아 언론들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

³ 주러대사관에서는 2010 년 이후 홍보관이 공사참사관으로서 문화원장을 겸하고 있다.

⁴ 2011 년 3 월 현재 회원은 16 개사 18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 해 안에 한반도 연구 러시아 학자들을 받아들여 < 코리아 클럽> 으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활동은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유능한 기자의 ‘덜’에 걸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주러 대사관 홍보관은 또한 분기 1회 공공외교 유관 기관장이 참여하는 홍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한다. 대사 또는 홍보공사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총영사, 교육관, 국제교류재단 파견관, 관광공사 지사장, 문화원장, 유학생협회장, 선교사협회장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러 수교20주년 행사기획’등 국가이미지 제고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대러 공공외교를 수행한다.

언론 이외 홍보관은 대러 공공외교 영역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한반도 전문 학자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학자라고 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남북한 문제에 있어 미온적이거나 ‘등거리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 한국 측으로서는 결과물을 즉시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일부 학자들은 남북한을 모두 오가며 등거리 문화·학술 활동을 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 한편으로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러시아의 특수환경을 이해하고 한국의 공공외교 영역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들은 이들 한반도 전문 학자들에 의존하여 논평을 받아내기 때문에 이들 학자들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분기에 한 번 개최되는 주러 대사관의 통상투자진흥회의도 주요 공공외교 활동 중의 하나이다. KOTRA, 관광공사는 물론 러시아 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회 회원들이 모여 우리기업의 대러 진출문제를 토론하는 마당이다.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있어 관련법이나 러시아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보다 정책설명에 치중함으로써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기업도 중요한 공공외교의 주체나 객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투자진흥회의에는 경우에 따라 러시아 상공회의소 간부나 러시아의 경제정책 담당자, 기업인들을 참여하는 것이 좋다. 국제교류재단의 지리교사 초청 연수회도 공공외교 활동의 좋은 본보기이다. 2009년 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지소는 한국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동시에 독도와 동해표기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 지리학과 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결국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교사들은 귀임하여 동해·독도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부교재 제작 시 동해를 단독 표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2 주러 문화원의 공공외교

사실 대 러시아 공공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은 문화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문화원들은 자금력도 갖추고 있어 운영자에 따라 공공외교의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이 한국 공공외교의 사령탑이라고 한다면 일선 각 지역에서는 문화원(혹은 홍보관)이 공공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해당된다. 홍보관이나 문화원장은 주재국에 대해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주재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주러 문화원은 한러수교 2년 뒤 공보원으로 처음 개원되어 홍보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공보원-홍보원-문화홍보원 등으로 바뀌는 등 정체성 혼돈을 겪어 왔으며, 활동도 공적인 문화행사에 국한되어 왔다.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주러 문화원의 활동은 대전환을 맞이했다. 공적인 문화외교의 틀을 벗어나 이른 바 공공외교 영역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수 많은 활동을 펼쳤다. 한국과 러시아의 젊고 유능한 음악도 들이 참여한 한러 공동오케스트라가 구축되었고, 러시아 최대 민간 스포츠클럽인 <디나모>에 축구, 농구, 하키, 배구팀 이외에 2011년 올 해 태권도클럽의 창설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러시아 발레와 한국의 무용이 결합된 ‘한러 발레클라스’가 곧 문화원에서 공식강의가 시작된다. 공공외교의 수행이라는 명분아래 형식과 내용들이 대폭 개선되어 나갔다.

한편으로는 문화원은 러시아의 민간기업, 단체와의 협력도 활발하게 벌여나갔다. 러시아 공공외교 행위자들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주러 문화원은 지난해 러시아 e-sports 협회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사인 mail.ru와 손잡고 러시아 최초로 ‘전국 온라인 게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동 대회에 러시아 청소년 2만 여 명이 온라인에서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언론들은 물론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러시아 마약청은 동 대회 기획사를 통해 2011년에 2회 대회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마약에 빠진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이들을 건전한 게임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참여를 희망해온 것이다. 주러 문화원도 흔쾌히 찬성해 2011년 9월 개최되는 ‘러시아 e-sports 페스티벌 및 온라인 게임전시회’는 러 연방 마약청과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정보통신과 게임 강국인 코리아 브랜드를 주재국에 홍보하면서 주재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모범적인 공공외교의 포맷이라고 볼 수 있다.

게임 페스티벌 외에 올 해 공공외교 활동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음식 강좌이다. 음식 강좌 개설에 앞서 주러 문화원은 지난해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인이 좋아하는 한국 대표음식 20가지’를 조사했다. 동 조사를 근거로 지난 해 문화원에는 처음으로 한식강좌가 도입되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인 지 러시아 텔레비전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강사는 모스크바에서 스타가 되었다. 올해에는 국립 러시아 식품대학, 조리 전문대학, 플레하노프 경제대학 등 6개 대학에서 한식강좌가 추가 개설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원의 대러 공공외교 전선은 2011년 ‘한식과 게임’으로 그 지경을 크게 넓혀갔다. 지난 2월말 주러 문화원과 러시아 쿨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단편영화·만화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단편 만화영화제는 주재국 국민들의 문화적 취향에 반응하면서 개봉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주러 문화원이 지난해 단독으로 개최한 한국영화제는 좌석점유율이 70%선에서 머물렀으나 러시아 영화기획사와 손을 잡은 결과 좌석점유율이 95%를 넘어 공공외교의 새로운 협력형태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에 앞서 주러 문화원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다. 우리의 콘텐츠를 주재국의 하드웨어와 결합해 보았다. 물론 이 행사는 주재국 문화외교 핵심인사를 총출동시켜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지난해 12월 국립 레닌도서관 동양학실에서 ‘2011년 한국의 멋과 맛’행사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러시아의 주요 문화 예술 체육계 핵심인사 50명만을 초청, 한국의 전통가락과 한국의 현대식 고급요리를 선보였다. 행사는 러시아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한국의 가락과 음식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참석을 하지 못한 다른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이 다음에 꼭 초청해 달라는 전화가 이어졌다.

2.3 유관단체, 기업들의 공공외교

공공외교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주체는 기업군이다. 한국, 러시아기업 모두 공공외교 전개에 있어 공공외교의 주체자, 동반자라는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 예로 모스크바 칼루가 주에는 삼성 등 우리의 유수의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칼루가 주 방문객 유치에 위해 ‘에트노미르’라는 민속촌이 있다. 민속촌 안에는 각국 홍보전시관들이 들어서 있다. 이곳 한국 홍보실은 같은 인도 중국 일본 홍보실에 비해 매우 초라해 방문객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에트노미르 측은 이와 관련, “칼루가 주 입주 기업가운데 한국기업들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홍보실 개관에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직접 자국의 홍보실에 관심을 쏟으면서 독특한 국가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이었다. 입주한 한국의 기업들이 반드시 민속촌의 한국홍보전시관을 지원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사회기여, 사회봉사 문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은 톨스토이 문학상 제정 지원, 볼쇼이 극장 리모델링 지원 등을 통해 현지 문화 예술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의 수입규모를 감안할 때 그리 높은 수준의 지원규모는 아닌 것 같다.

기업의 공공외교는 주재국에서의 사회기여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룬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은 마케팅과 광고홍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도 정작 공공외교 지원에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스위스 기업들에 비해 인색하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문화원이 주최한 러시아 전국 온라인 게임대회에서는 현대자동차가 I-20 자동차 1대를 그랑프리 상품으로 내놓아 문화원교 활동지원에 새 장을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야쿠르트 러시아 현지법인이 게임 참여 선수들을 위해 음료와 다과를 제공하는 등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게임대회를 통해 기대 이상의 홍보마케팅 효과를 보면서 올해

프로게이머의 빅매치를 포함한 2011년 러시아 e-sports 페스티벌의 주요 스폰서로 참여할 예정이다. 러시아 기업의 경우 지난해 온라인 게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는 러시아 최대 인터넷 포털기업인 mail.ru, 러시아 최대 게임수입업체인 인노바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한국 대러 공공외교의 한계

3.1 한국, 러시아측의 문제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의 대러 공공외교는 20년 짧은 수교역사에 비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공공외교의 주체와 내용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한편으로 정부의 인식이 바뀌고 민간부문의 관심영역이 확대되면서 공공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러 공공외교가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부처마다 ‘나홀로 외교’가 진행되는 공공외교 시스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 현안과는 이따금씩 연계되지만, 활용하는 단계로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굳이 지적하자면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과 열정은 갖고 있으나, 실제 공공외교의 목적을 이루는데는 정부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다소 구조적인 문제로 다음 사항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시스템의 문제다. 정부의 중요한 공공외교 유관 조직은 장관급인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비롯,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아리랑TV,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 국제교류재단, 지식경제부의 KOTRA등을 들 수 있다. 공공외교에 상당한 예산 투입이 되고 있으면서도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실제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⁵ 공공외교의 추진동력이 산재해 있고 그 기능이 분산되어 협력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 최일선 현장인 공관에서 공관장과 문화원장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공외교, 문화외교를 4대 지표로 강조한 바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주러 대사관의 경우 1인 문화원장으로 축소되어 있어 공공외교 현장에서 공관장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의 공공외교는 아직 강력한 통합 국가이미지 형성에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적, 전략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자산을 강력한 긍정이미지로 바꿔나가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전략은 약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디지털강국’을 위해 온라인게임 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대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의 발전이미지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안 외교전선, 예를 들면 천안함 외교에서 러시아로부터 한국 지지입장을 끌어내는 데 별다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외교에 있어 주축인 민간부문, NGO, 국제기구, 기업참여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 한식 강좌사업, 게임대회 및 전시회 등 일부 공공외교의 영역에 기업집단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진출규모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이는 정부부문의 프리젠테이션이 취약한 탓도 있으나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글로벌 기업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과 판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공외교 무대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업브랜드가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주고 국가브랜드가 다시 기업 마케팅에 피드백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⁵ 2007 년 기준 공공외교의 주축인 해외홍보 예산을 보면 한국이 정부 예산부문 중 0.009%, 영국 0.03%, 일본 0.04%, 호주 0.0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의 공공외교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에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다.

기업들이 공공외교의 영역에 보다 강력한 참여가 필요하다.⁶

넷째, 공공외교 차원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기관별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인초청 사업, VIP 초청사업(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한식홍보 사업(외교통상부, 농수산식품부, 해외문화홍보원), IT강국 홍보사업(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등은 적어도 부처 몇 군데에서 중복적이고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당부분 일회성 사업으로 인한 고객관리 차원이지만, 고객만족이나 전략적 고객관계 차원으로는 향하지 못하고 있다.

3.2 미래 대러 공공외교의 방향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2%의 기업이 제품구입 및 투자선 결정에서 국가이미지를 고려한다는 조사결과를 읽은 적이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안보 경제정책 등이 국가간의 이해와 지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이었지만, 지금은 문화교류나 문화콘텐츠의 발달과 활용, 즉 소프트 파워가 국가간 경쟁에서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⁷ 국가이미지는 기업 및 제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는 기업 및 제품 이미지가 거꾸로 국가브랜드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다. 국가간 제품의 기능과 품질격차가 줄어들면서 국가이미지가 중요해지면서 공공외교의 역할도 그만큼 특별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러 공공외교는 민간부문으로 연계 확산되어 민간주도의 공공외교가 확산되고, 이것이 공적부문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국가브랜드를 통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 정부적 공공외교의 사령탑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통합적으로 공공외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성과관리가

⁶ 주러대사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파견된 홍보, 문화인력이 공사급 1인, 참서관급 1인, 서기관급 1인이 공공외교를 담당했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처이기주의가 작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원장 한 명이 홍보와 문화 스포츠 관광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⁷ Joseph Nye, Soft Power, Why military power is no longer enough, The Observer, 2002.3.31

행해져야 한다.

공공외교의 주체들도 공공외교가 단순히 국가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통적 사고를 넘어 국제적 현안, 전략적인 이슈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현안과 연계되지 않으면 공공외교 역시 단순한 문화교류 정도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 FTA 전개과정에서 보면 미래 공공외교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미 정부간 FTA를 합의해놓고도 민간부문(언론, 기업부문 포함)을 설득시키지 못하고는 정부간 합의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러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강력한 통합 국가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일이다. 우리는 한류 게임 등 세련된 현대 문화콘텐츠 등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강국,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 글로벌 리딩 기업, 첨단 의료과학기술 등을 갖고 있다. 전략적 자산을 공공외교의 무대로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러 공공외교의 추진계획(실례)

I. 홍보목표 및 중점

-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활성화 위한 '대민(對民)외교' 강화
-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
- 정책 시사점 발굴 강화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
- 국가발전과 홍보성과 국내순환을 통한 대국민 자긍심 제고

II. 주요 추진계획

1. '대민(對民)외교' 강화 통한 국가정책 긍정여론 확산

- 한반도 전문가 및 주요 THINK TANK 대상 '한반도평화포럼' 운영
- 현지 주요 매체 기고 등 국정특파원 기능 제고
- 학계·언론계 등 여론주도층 Fellowship 주선 및 상호교류 확대
- 한반도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대상 강연 및 한국소개 활동 강화

2. 과학적인 국가브랜드관리 및 브랜드 파워 강화

- 민·관 협력 국가브랜드 여론 탐지 활동 및 기업마케팅 지원 강화
- 한인 탑승 우주선 탐사 등 주요 계기 활용 한국종합홍보행사 개최
- 재외 홍보유관기관과의 브랜드 이미지 통합관리체제 구축
-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홍보

3. 국가정책 신뢰도 및 대국민 자긍심 제고

- 극동 및 중부 시베리아 지역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등 홍보거점 발굴
- 러시아내 주요 대학·연구소 '한국자료 코너' 설치 확대 및 지원
- CIS 및 중앙아시아 대상 '체험 다이나믹코리아' 프로젝트 운영

4. 지한(知韓) 네트워크 등 홍보 인프라 정비·구축·활용

- 차세대 친한·지한 네트워크 구축 및 부처 공유 활용 강화
- 러시아어 홍보 콘텐츠 다변화 및 홈페이지 연계홍보 강화

-러시아·CIS 국가 대상 공공외교 세부추진계획

□ 홍보목표

- 국제무대 협력파트너로서 국가이미지 및 국가신인도 제고
- 주요 정책 관련 긍정여론 조성 및 CIS권역 지지 확보
- 차세대 리더 교류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 홍보중점

-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험 활성화 위한 ‘대민(對民)외교’의 강화
- 과학적인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가브랜드 파워 강화
- 정책 시사점 발굴 강화 통한 정책신뢰도 제고
- 국정특파원 역할 활용, 홍보성과 국민 자긍심으로 연결

□ 추진방법

- 러시아 및 주변국가 특성 및 홍보수요 고려한 맞춤형 홍보사업 전개
- 지한(知韓) 네트워크 보강과 정보 공유체계 적극 가동
- 「홍보전략회의」등 민관 홍보추진체계 정비 및 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비 등 뉴미디어 홍보콘텐츠와 기법 개발·적용

□ 세부사업계획

1) ‘대민(對民)외교’ 강화 통한 국가정책 긍정여론 확산

- 여론주도층 초청 정기 ‘한국바로알리기 강좌’ 운영
 - 러시아 정관계·학계·언론계·경제계·문화계 인사 대상 정부 시책 및 양측 주요 현안 등 소개 강연 및 세미나 정례화
 - 주요 성과 현지 언론보도 및 국내 순환홍보 병행
- ※ CIS 국가 및 중부 및 극동지역 시베리아 지역 대학·연구소도 포함

○ **각계 주요 인사 방한초청 및 교류 강화**

- 언론재단·국제교류재단 등 유관기관 민간초청프로그램 활용, 언론계·학계 인사 초청, 한국 긍정여론 조성 및 교류 확대

- **민간기업 연계, 소외계층 학생·청소년 교류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한국체험 프로그램」 설치 추진**

○ **대학 등 순회강연 정례화 추진**

- 대사, 홍보관 : 젊은 층 대상 남북정상회담, 한미·한-EU FTA 등 정책성과 알리기

- 대상 : 모스크바·뻬쩨르부르그 국립대학, 외교 아카데미 등, **강연내용은 홈페이지 및 러시아 미디어 노출 유도**

○ **한국학 전공학자 대회 개최 및 체한 연구 Fellowship 주선**

- CIS 한국학 대회 기획, 러시아어 권역 순회 정례행사로 육성

※ **민간기업과 함께 「한국-러시아 Fund」구성**, 러시아가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 및 우주과학·자원·에너지 분야 학자 선정, 러시아 연수기회 주선

○ **국정특파원 기능 제고**

- **모스크바 상주 외신 특파원(2,000명 상회) 대상 교류프로그램 강화**

- **러시아 주요 매체 및 국내 정부보유 매체 기고 및 출연 강화**

2) 과학적인 국가브랜드 파워 강화 및 관리

○ **주요 계기 활용 한국종합홍보행사 기획·추진**

- 한·러 수교 18주년(9.30) 계기 Dynamic Korea Festival, Dynamic Korea 홍보부스 운영 등

- 현지 홍보추진 체계인 **「홍보전략회의」** 활용, 민·관 행사 활성화

○ **주요 국제행사 한국개최 및 유치 지원 홍보**

- 2008년 환경올림픽 람사 총회(경남, 우포늪), 2008 세계 나비·곤충엑스포(전남) 등 ‘환경 코리아’ 등 자치단체 홍보활동 지원

○ 민관 홍보협력사업 통한 국가 브랜드 홍보

- 민간기업-정부 공동으로 「톨스토이 문학상」 등 제정 추진
- 러시아내 한국 국가이미지 여론조사 정례화 (대한항공 등 홍보 유관기관 협력)
 - ※ 마케팅 활용방안 강구
- 모스크바 모터쇼 등 각종 계기 시 코리아 홍보부스 운영

3) 국가정책 신뢰도 및 대국민 자긍심 제고

○ 국정브리핑 기고 및 현지 정책참고사례 발굴

- 국내와 현지 의제 연계, 국정홍보성과 소재 국정브리핑 기고
- 현지 정황 등 참고사항 포착, 국내 정책홍보 수단으로 활용
- 공관장 및 공관 직원·주재국 유력인사·동포 등 기고 및 인터뷰 참가 후보군 DB 구축

○ 「공관장과의 만남」신설, 관련 내용 인터넷 연계홍보

- 한반도 평화 진전 사항 등 브리핑 '적극 모드' 전환
- 수시 브리핑 통해 러시아 언론 한반도 데스크 네트워킹 모색
 - ※ 2천명 가까운 모스크바 상주 외신기자 활용 모색

○ 인터넷 등 홍보수단 다양화 통한 국내외 긍정여론 확산

- 사용자 중심 러시아어 홈페이지(www.infokorea.ru) 정비, 활성화
- 온라인 정책브리핑, 한국어 강좌, 한국관련 정보 보완
 - ※ 러시아내 한국기업 및 친한 러시아기업에 LINK 강화

○ 한국 바로 알리기 지평 확대 및 한국 소개자료 체계적 보급

- 모스크바 국립 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한국소개 코너 추진
-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 고려인 대상, 노어판 한국자료 보급
- 노어판 한국관련 자료조사 강화 (페테르부르크대학등과 협조, 각급교과서 및 연감

한국오류 발굴 및 시정)

- 대학·연구소와 연계, 「한국 고지도 순회 전시회」추진

4) 지한(知韓) 네트워크 등 홍보 인프라 정비·구축·활용

○ 차세대 친한·지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운용

- 차세대 지도자, 한·러 포럼 참가인사 등 방한 경험 오피니언 리더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
- 한·러 청소년 교류 확대, 한국어 전공 대학생 에세이 컨테스트 등
- 주요 언론사 한반도 전문기자 육성지원을 위한 6개월~1년 기간 체한연수 프로그램 및 민간 주관 언론인 Fellowship 한반도데스크초청 추진

○ 러시아어 홍보 콘텐츠 다변화

- 러시아어 한국소개 기본자료 현지 발간 추진 및 러시아어 자막 제공 아리랑 TV 뉴스 확대 지원

○ 홍보 인프라 확충

- 대사관 홍보실 기능, 한국홍보, 행사운용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선

- 아리랑 TV 전용 수신시설 지원: 한국학과 설치 대학·한국담당 기관·도서관·연구소·언론사·여행사·주요 인사 대상